

전북 제조업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69’

전북상의, 내수 부진·경제 불확실성 지속… 당분간 경기 침체 예상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2/4분기에 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전북상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BSI가 69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일 경우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집계된 것은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른바 시계제로의 상황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여파로 수출액 감소와 채산성 악화, 영업이익 감소, 자금시장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역 기업들의 73.7%가 올해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72), 영업이익(68), 설비투자(71), 자금시장(65) 등 모든 항목의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기업들은 정국 불안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는 업종별 전망은 모든 업종의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

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는 '내수경기 부진(2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20.4%)',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15.3%)', '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15.3%)'를 리스크로 지목한 기업도 적지 않았으며, '고환율 기조 지속(10.2%)', '트럼프 2관세정책(9.3%)', '기타(1.4%)' 순으로 응답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시장 다변화 개척 등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속한 정국안정과 더불어 정책당국은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 등의 노력과 함께 기업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창업·인력 정책분야 전문가

제21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세희 신임 청장 취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24일 제21대 전세희 신임 전북중기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세희 신임 청장(행시 51회)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전세희 청장

창업정책총괄과 등 주요 핵심 업무를 거쳤고, 최근에는 투자회사과장, 지역혁신정책과장을 맡는 등 벤처, 창업, 인력 정책분야에서 중기부 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세희 신임 청장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벤처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기부의 역할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시행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지사장 김운섭)는 지난 21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자주 부는 산불 취약 시기를 맞아 부안 내소사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소사를 찾은 등산객 및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력 설비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위험성과 전력설비 인근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됐다.

김운섭 김제전력지사는 "단 한 순간의 전력공급 차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산불로 인한 송전설비 고장을 방지하고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무고장·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전 김제전력지사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산불방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LX공사, 몽골에 ‘K-주소 전파’ 본격화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 KOICA ‘공공협력사업 공모’ 최종 선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을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으로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공공협력 후보 사업으로 1차 선정되었다.

또한, 11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2월 14일 최종 심사를 거쳐 공공협력사업 공모의 관문을 통과해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는 몽



골의 생활공간이 도시와 농촌, 유목 등으로 다양하고,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인해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몽골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의 K-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제

안액 110억원 규모의 이번 몽골 사업 총 기간은 3년 10개월로 △주소정보 시스템도도와 △주소정보 DB구축 △게르(Ger) 지역 무단점유지 현황 조사 △길안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등 몽골의 주소체계 고도화와 토지·도로정보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X공사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에 대한 몽골 정부의 열의와 행정안전부와 LX공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높은 평가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외교부 시행계획 검토 및 '무상개발협력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올 하반기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 농산물 2000만\$ 수출에 힘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 수출협의회는 지난 21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5년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도내 27개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농협 광동열 조합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농협 김기욱 조합장이 부회장으로, 남원원에농협 김용현 조합장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또한 “2025년 농협 농식품 수출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

고 전북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수출방안을 모색했다.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광동열 조합장은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 전북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557만 달러의 농산물 수출을 이뤄냈다.

또한 올해는 배, 파프리카, 밤, 사인머스켓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도 딸기, 고구마 등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베트남, 대만, 일본, 홍콩, 캄보디아, 중국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 농산물 수출 2,000만 달러 달성에 전북농협이 주춧돌 역할을 해나가고 수출 확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사 티시먼 스파이어(Tishman Speyer)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티시먼 스파이어 전주사무소 개소

국민연금, 파트너십 강화·글로벌 투자기회 발굴 확대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사 티시먼 스파이어(Tishman Speyer)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서울에 한국법인을 설립한 지 약 3년 만에 두 번째 사무소 개소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만성동에서 열린 티시먼 스파이어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티시먼 스파이어 최고경영자(CEO)인 롭 스파이어(Rob Speyer)와 글로벌 캐피탈마켓 총괄 프레드 월덱(Fred Waldeck)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티시먼 스파이어는 2024년 말 기준 11개국 37개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두고 1,200명의 전문가가 총 6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개발·운용 전문회사로, 2011년부터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자산을 위탁운

용하고 있다.

티시먼 스파이어 전주 연락사무소는 현지 밀착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부동산 투자 기회 발굴, 자본 시장 분석 및 자문 서비스 등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롭 스파이어 최고경영자는 “전주사무소 개설로 국민연금과 함께 글로벌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전북의 금융허브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에서 공단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서울에 이어 전주에도 사무소를 열기로 약속했는데 이행돼 기쁘다”며 “지난 14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기금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